

## 正義와 사랑, 그리고 教育

鄭 永 洙

(忠北大 教育學科)

‘건전한’ 社會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그것은 正義와 사랑이다. 이 두 가지는 건전한 社會의 조건인 동시에 現實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차원이다. 現實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現實이란 正義의 原理뿐만 아니라 사랑의 법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러한 現實이라야 그 存在로서의 價値를 인정받는다. 좁은 뜻에서의 正義만 따진다고 해서, 또 잘잘못을 은폐한 채 사랑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건전한 社會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듯 正義와 사랑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건전한 社會의 兩面性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正義와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 正義의 原則은 ‘正當한 자기 소유’의 이념을 근거로 한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와 부정당한 권리를 구별하는 이념이다. 그것은 ‘내 것’, ‘네 것’을 분명히 따지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실행한다. 마땅히 자기 소유를 자기가 갖고 남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正義는 각자에게 자기 이익을 돌리려는 意志의 表現이며, 必要에 따른 分配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倫理的 準據이다. 그것은 現實의 組織·制度의 倫理 가운

데 궁극의 판단 기준이며 志向點이다. 그래서 그것은 공평무사한 합리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社會的·普遍的 개념인 것이다. 不正義的 상황이란 이러한 正義의 原理나 理念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예컨대, 빛진 자는 빛을 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빛을 갚는 행위는 公平의 原理 아래 실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무시되면 社會 질서는 허물어진다. 미성숙한 社會일수록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속세를 안고 있다. 이렇듯 正義란 기본적인 社會 질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이다. 그와 같은 正義로운 상태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제각기 맡은 분야에서 일들을 철저히 끝내 주고 보람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치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스리는 일에만, 군인은 국방에, 학생은 공부에, 주부는 가사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러한 社會를 우리는 正義로운 社會라 부른다.

한편 사랑이란 人格的 倫理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行動 倫理이다. 그것은 人間에 대한 倫理에 있어서 궁극의 準據인 것이다. 그것은 ‘내

것', '네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내 것을 타인을 위해 주는 것이며 가치를 판단하기에 앞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存在樣式으로서의 사랑은 무엇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타산과 합리성을 초월한 초이성적이며,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또 사랑은 자신의 입장이나 가치관 속에서 또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지를 바꾸어 당사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과 과정상에서 행여 상처받거나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것이다. 범죄자가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감성적인 느낌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겪어야 할 고통스런 과정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문제 해결의 길이 묘연한 벽에 부딪혀서도 결코 대안 추구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正義와 사랑의 이율배반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正義와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앞서 밝혔듯이 正義는 制度의 세계에, 사랑은 人格의 세계에 속한다. 人間相互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좁은 사랑이며, 制度 자체내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正義이다. 그런데 正義의 制度는 人格의 주체에 의해 다스려진다. 바꾸어 말하면 制度는 人格을 위해 存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랑은 正義를 초월해 있는 것이다. 즉 사랑의 차원에서 보면 正義는 사랑보다 낮은 차원의 위치에 존재한다. 그래서 사랑은 正義의 完

成, 正義의 極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이유 때문에 正義를 희생한다거나 눈감아 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 경우의 사랑은 거짓 사랑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사랑은 正義를 초월해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正義를 실천하면서 초월한다. 예컨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강도질을 묵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사랑은 잘못되어 있는 현실을 正義의 原則에 따라 질타하고 責任을 묻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正義의 원칙과 人間存在의 존엄성을 다 같이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랑의 실천 조건의 하나는 正義의 원칙 준수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순수한 正義에 대한 要求는 사랑이 存在하는 곳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실상 우리는 강렬하고도 진정한 사랑의 동기를 소유할 때 이기심을 버릴 수 있고 正義의 실천 의지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正義의 實踐條件은 사랑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사랑과 正義는 본질상 차원을 달리하면서도 멜레야 멜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非理를 들추고 正義社會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先行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계할 일이 있다. 正義 없는 사랑이 制度의 세계를 부패시키듯이, 사랑과 공존없는 正義는 현실의 制度와 社會를 非人格의 狀況으로 전락시켜 '내 것', '네 것', '잘잘못'만 따지려 드는 人民의 集合體로 변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좁다란 의미에서의 正義만을 따지는 것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듯하지만 또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 반면에 사랑은 正義나 法을 능가해서 根源의 問題를 해결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大學의 知性들의 고민은 正義와 사랑의 關係

는 무엇인가 라는 인식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서 이들 正義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실상 正義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正義로운 行動을 한다거나 사랑의 실천을 위해 利己心을 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正義와 사랑의 실천과 이기심과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正義·사랑에 관한 認識으로부터 實踐으로 옮기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적 상황에 처해서 자기 추구적 이익 등기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利益과 正義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옳다고 판단하는 바를 행하거나 사랑의 실천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正義와 사랑은 개인의 성숙 수준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모호하고도 불확실한,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은 正義와 사랑의 實踐이라는 사실이다. 正義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책임있게 완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부패·비리를 들추어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비판적 知性을 소유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正義와 사랑의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를 테면 無知, 欲心, 게으름, 무절제한 향락, 비겁함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올바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正直한 評價를 내리고 어떤 存在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오늘의 敎育은 모름지기 正義와 사랑의 실천에 관한 고민을 외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상 敎育 그 자체의 본질이 正義와 사랑의 실천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敎育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며 올바른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敎育은 삼라만상에 깃들여 있는 수많은 현상 질서와 법칙들을 올바르게 보고 (正見), 이해하며(正思),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正行)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現實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論理的 世界에로 입문하는 것을 뜻하며, 올바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實踐의 世界에로 입문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自由로운 삶이라 부른다. 요컨대 敎育의 本質的 價値는 장님으로 하여금 제대로 보게 하고, 귀머거리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하며, 절름발이로 하여금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現實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고 自由로운 삶을 누릴 수 없게 하는 無知와 편견의 장벽들이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한다. 그러한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고 現實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고민을 해소해 주는 것이 곧 敎育이다. 그것은 正義와 사랑의 存在를 인식시키고 그것들이 우리 社會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正義와 사랑이란 인식하는 것으로서만은 불완전하면 실천에 이를 때 비로소 그들 개념이 完成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가르치는 것이다.

어떻게,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最上의 敎師는 오직 ‘實踐’과 ‘模範’이다. 正義와 사랑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들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줌으로써만이 우리는 正義와 사랑을 敎育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으로 건전한 社會의 條件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한다. 그 條件이란 다름 아닌 ‘正義’와 ‘사랑’, 그리고 이들의 存在와 意味를 가능하게 하는 ‘敎育’이다. 오늘날 ‘認識의 實踐으로의 飛翔’을 위해 요청되는 것은 진리를 굴절시키지 않는 大學의 참다운 知性敎育이다. 이같은 敎育이 이루어질 때, 社會는 正義·사랑이 강물 같이 흐르는 平和로운 社會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